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15

##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

### 사례연구 3: 문화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통역사와의 협력

---

#### 연구배경:

서구 문화권의 전통에 익숙한 연구자가 생소한 문화적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리 빈틈 없이 준비를 마치고 온 연구자라도 타 문화권 내의 연구지에서는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걸림돌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언어를 모르는 데에서 온다. 2004년 인도 남부를 강타한 쓰나미가 발생한지 4년 후에 시행된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층적인 문제점을 겪었다. 연구가 집중한 분야 중 하나는 주어진 하위문화 속에서 부양자와 아동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는 아동에게 있을 장기적인 트라우마의 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윤리적 문제:

연구가 진행된 곳은 인도 남부의 아주 외딴 지역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쓰나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연구 참가자 중에는 쓰나미로 부모를 잃고 대안가정(보호소)에 살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은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으며, 서구 문화를 접해본 유일한 때는 쓰나미 긴급 구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에 머물면서 연구자는 특히 아동들로부터 실생활에서 수직적 집단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아동들이 어른의 권위나 계급에 도전하지 않고 그들을 공경해 왔으며; 이는 복종, 의무, 책임이라고 여기는 아동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

아동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성찰을 얻기 위해 행동 제약이 거의 없는 조화로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 환경은 아동들이 포커스 그룹 질문에 집중하도록 했다. 아동들이 평소 어른에게 보이는 행동 양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구의 일면이었다. 하지만 성인 통역사들은 그렇게 유도하더라도 평소 아동이 어른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외줄 타기는 성인 통역사가 문화의 매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아동을 대하는 적절한 통역사를 찾기 위함이었다.

#### 선택방법:

현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 남녀 그룹에서 통역을 담당할 두 명의 남녀 학생을 선발했다. 두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됐다: 2개 국어 구사 가능자(타밀어와 영어, 특히 타밀어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밀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아동의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 통역을 할 때 요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태도가 아동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이틀에 걸쳐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훈련받았으며, 다양한 이론적인 개념들(예를 들어 트라우마, 웰빙 등)에 대한 배경지식을 배웠다.

행동 강령에는 아동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체벌 금지, 소규모 집단에서의 자율적 행동)와 연구자가 왜 주어진 방식으로 아동을 대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행동 강령에 제시한 근거들에 대해 통역사들과 적극적인 토의를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기본 업무인 통역 훈련도 받았다.

통역사들은 (1) 작은 의미 단위로 통역할 것 (2) 임의로 질문을 덧붙이는 것을 피할 것 (3)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아동과 따로 대화하는 것을 삼갈 것 (4) 게임 등 다른 놀이 및 휴식 활동에 참여할 것 (5) 기밀을 유지할 것을 주문받았다. 매 인터뷰 전에 연구팀은 통역사들과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해당 그룹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도 마쳤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아동과 친밀함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들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견과 느낌을 공유했다.

####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 할 문화적 관습은 무엇인가?
- 연구 시행에 있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
- 통역사의 임무가 통역 자체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그룹 형성에도 기여할 때, 어떻게 협업해 나가야 하는가?
- 연구 개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통역사는 어떻게 잠재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가?

**자료제공:** Dr. Silvia Exenberger,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Innsbruck/Austria. SOS Children's Villages Inter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Department, Innsbruck/Austria.

---

### 사례연구 4: 포커스 그룹의 정보 공유가 아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 연구배경:

The Flemish Commission of Children's Rights(플레미시 아동인권협회)는 플랑드르 지방의 아동 학대 발생률과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Research Centre Childhood & Society(Kind & Samenleving)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설문 대상은 10-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 설문 구성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시행된 사례들을 참고하고, 플레미시의 사회상에 맞게 변형됐다. 설문 내용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보호, 권위, 체벌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들과 폭넓은 대화를 진행해 보호와 권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틀이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8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 10-18세까지의 남녀 아동 46명과 연구를 진행했다. 각 포커스 그룹은 6-8명의 아동으로 구성됐으며, 3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첫 토론에서 아동들은 보호와 방치, 두 번째에는 권위와 체벌, 세 번째는 학대와 방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논의했다.

### 윤리적 문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성인과 아동 사이에 나타나는 비수평적인 모습은 낯선 성인과 함께 하는 개별 인터뷰에서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덜 나타난다.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덜 경직돼 연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모든 포커스 그룹 토론이나 인터뷰에서 그렇듯, 힘들었던 경험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표현돼 참여하는 아동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보호·권위, 체벌, 학대와 방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본 연구의 질문은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의 아동과 보호 및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묻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나, 경우에 따라 아동은 학대, 방치와 같은 경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마주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그러한 경험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그동안 숨겨왔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키로 작용하는 셈이다.

각 참가자에게 연구 주제가 가질 수 있는 민감성과 더불어, 이 토론은 참가자들 간의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토론 중에 몇몇 아동들은 심각한 체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아동들은 매우 놀라며 “그건 아동 학대야!”라고 반응했다. 이러한 정보가 아동 간의 관계를 바꿔 놓았을까?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논의된 사항은 모두 기밀 유지가 보장됨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다.

### 선택방법:

연구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아동 참가자에게 최대한 위험이 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모든 참가 학교는 정보를 담은 브로슈어를 받았다. 이 브로슈어는 국제적인 연구(아동 학대나 방치에 대한 설문지 개발)와 보호, 권위, 체벌에 대한 아동의 견해를 조사한 질적 연구를 소개했다. 브로슈어는 연구 과정을 안내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제안도 담았다.
- 각 교실에서 선별된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받은 뒤 브로슈어와 동의서를 제공받았다.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브로슈어를 읽어보도록 요청했고, 참여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 학생들은 브로슈어에서 연구 목적, 연구팀 소개, 아동의 권리(기밀 유지, 익명성, 참여를 중단할 권리)와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읽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지 환경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현지 사회복지사의 이름도 포함했다.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에 연구팀은 아동들이 꺼내는 이야기 주제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참가자들이 가진 전문성과 연구의 초점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보호와 권위에 대한 아동의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했다.
- 포커스 그룹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연구팀은 질문을 하기 위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포스터를 활용했다. 연구자가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이용해 “아동을 돌볼 때 사람들은 뭐해?”와 같은 질문을 아동에게 던졌다.

아동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초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 그룹을 이용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내용의 기밀 유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도 기밀 유지 조항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참가자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룹 토론에서는 ‘침묵상자’가 방에 놓여졌다. 아동들은 편지봉투와 종이 몇 장을 받았다. 만약 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종이에 적어 박스 안에 넣었다. 그 내용은 매우 어렵거나 사적인 것일 수 있고, 재미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또, 참가자들이 깜빡 잊고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팀은 아동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덜 신비스럽게 비춰지도록, 연구팀은 그룹 토론 후 교실로 돌아간 참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그룹 토론에 대해 덜 궁금하게 하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질문하지 않게 됐다.

###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 아동에게 논의된 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기밀 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포커스 그룹에서 민감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가?

**자료제공:** Hilde Lauwers, Research Centre Childhood & Society, Brussels (Belgium)

### 사례연구 5: 우간다의 아동 연구자에 대한 포용과 대표성의 문제

#### 연구배경: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세이브더칠드런 노르웨이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과테말라, 네팔, 우간다에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대한 주제별 평가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했다. 각 나라의 Child Clubs·Peace Clubs와 협력해 청소년들은 전문가, 동료 연구자, 활발한 응답자, 문서작성자, 옹호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연구팀이 함께 ‘연구단’과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연구단(때로는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식, 자신감 및 윤리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간다에서 열린 ‘Start up’ 워크숍은 여러 나라의 아동 및 성인 연구팀을 한 데 모았으며,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역량 강화 및 성찰 워크숍이 개최됐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